



과로 평가 된다. 지난해 오리고기 소비의 가장 큰 악재 요인이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질병이 3년 만에 또다시 발생되어 새로운 변수이기는 해도 지난해 오리 산업의 각종 지표를 점검해 본다.

첫째, 2006년 오리 산업 진단

지난해 오리 사육업계의 오리 생산은 종자오리 사육물량 증가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했다. 배합사료 판매량을 기초로 추정된 종자오리 사육물량은 총 4,162천수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되었다.



2007년 오리산업 전망

(주)모란식품 이사 **조문규**



국내 오리 산업은 지난해 그 어느 해보다 각 분야에 걸쳐 의미가 큰 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가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업계 경기가 2천년 들어 가장 좋았다고 하는 것이 그 것이고 특히 육용 오리 생산물량이 전년에 비해 30% 내외 증가한 상황에서 이룩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것은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보다 품질 좋은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졌는가? 이를 위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 졌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난해 경기 호황은 각 분야에 걸쳐 재투자의 활로를 열었다는 점 역시 성

이 중 폐킨종 새끼오리 생산물량은 48,430천수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23% 사육물량이 증가되었고 폐킨종 육용오리 생산량은 43,473천수가 생산되어 전년 대비 29%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1) 종자오리 사육 및 새끼 생산업

지난해 종자오리 사육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산란사료 월평균 판매량은 2,321톤으로 종자오리 월 평균 사육물량은 345천수가 사육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컷 종자오리는 69천수, 암컷 276천수가 사육되었고 폐킨종 종자오리는 307천수가 사육되어 폐킨종 수컷 61천수, 암컷 245천수 내외가 사육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란 폐킨종 종자오리 암컷의 평균 산란율을 75%, 부화율 73%를 적용하여 추정된 새끼오리 생산물량은 월 평균 4,035천수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종자오리 사육물량이 전년에 비해 26% 증가한데 비해 새끼오리 생산량은 23% 증가에 그친 것은 지난해의 경우 폭설과 여름철 혹서에 의한 부화장들의 생산성이 전년에 비해 다소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끼오리 생산물량이 전년에 비해 23%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끼오리 평균 가격은 육용오리 가격 호황에 따른 입식물량 증가로 1,098원에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새끼오리 거래 시세는 전년도 평균 거래 가격 885원에 비해 수당 213원이 올라 24% 상승한 시세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새끼오리 거래시세는 과거 5년간 새끼오리 평균 거래가격 685원에 비해 무려 60% 상승한 가격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 새끼오리 판매업계의 경기가 얼마나 호황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시세를 기준으로 지난해 폐킨종 새끼오리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면 531억 원으로 전년도 시장규모 347억 원에 비해 15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 육용오리 생산업

산란사료 판매량을 기초로 지난해 폐킨종 육용오리 생산량은 추정해 보면 평균 육성출하율 92%로 감안할 때 총 43,474천수의 육용오리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 평균 3,622천수의 육용오리가 생산되어 전년도 평균 생산물량 2,803천수에 비해 129%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산지 육용오리 거래 가격은 평균 5,549원 선에서 형성되어 생체 kg당 거래가격은 1,850원 선에서 거래되어 과거 5년간 평균 거래가격 4,287원에 비해 129% 높은 시세에 거래됐다. 이와 같은 산지 폐킨종 육용오리 거래가격은 전년도 수당 평균 거래가격 5,174원에 비

해 107% 상승했고 생체 kg당 시세로는 전년도 1,759원에 비해 105% 높은 시세에서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지난해 폐킨종 육용오리 시장 규모는 2,249억으로 전년 시장규모 1,741억에 비해 508억 증가하여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3) 오리고기 소비시장

지난해 국내 오리고기 소비시장은 전년에 비해 27% 내외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폐킨종 육용오리 생산량이 43,474천수와 토종오리 생산량 6,700천수 등 총 50,174천수의 육용오리가 생산된 것을 추정하여 산출됐다. 이를 육용오리 수당 평균 정육 생산량을 1.2kg으로 계산한다면 전체 오리고기 생산량은 정육기준으로 60,209톤에 달하는 물량이다. 따라서 국내 전체 인구를 4천8백70만 명으로 계산하여 지난해 소비된 오리고기 국민1인당 소비량을 추정하면 1.236kg에 달하게 되고 이는 전년도 소비량 0.97kg에 비해 127%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007년 오리 산업 전망

1) 육용오리 생산 사육

과거 경기 불황으로 지난 2004년 이전까지 오리 사육을 포기한 농가들이 지난 2년간의 경기 호황에 힘입어 개별사육 또는 위탁사육 형태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남지역의 오리 사육농가들은 2005년 폭설에 의한 피해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호황으로 위탁형태의 사육농가는 위탁 수수료 정산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개별농가는 경영소득이 비교적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사육물량 확대에 힘입어 사육농가 확보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오리 사육업은 활황을 구가하였고 올해 역시 사육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에 의한 변수가 관건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리 생산이 이뤄지게 되면 올해 오리 사육물량은 전년에 이어 또다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육물량의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농가의 생산성 개선노력이 선행되지 못하면 경영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가의 경영관리 개선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오리 생산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산란사료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월 평균 2,321톤이 판매되어 사상 초유의 판매를 기록했다. 이는 35만수의 종자오리가 사육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지난해 11월 판매물량은 2,469톤이 생산되어 35만8천수까지 증가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생산되는 폐킨종 육용오리 사육물량은 올 1월에 4백만수를 육박하게 되고 질병에 의한 살처분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3백50만수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49% 증가되어 소비물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생산물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격반등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측된다.

2) 종자오리 새끼 생산

종자오리 사육물량이 크게 증가된 가운데 새끼오리 가격역시 높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올해의 흐름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다. 오리업계의 경기 호황의 단초가 시작된 2004년도 평균 산란사료 판매량은 1,579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평균 판매량은 2,558톤으로 162% 증가했다. 이는 종자오리 사육물량과 새끼오리 생산량이 그 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폐킨종 종자오리 사육물량을 추정하면 암컷 기준으로 28만수 내외의 종자오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산

란율, 부화율 75% 감안한 새끼오리 생산예측 물량은 4백70만수 내외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어 진다면 올해 새끼오리 생산물량은 크게 증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격형성이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는 하나 종자오리에 대한 기준설정해 의해 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통해 올바른 사업자가 발전하는 틀이 신속히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종자오리 등록제의 제도 정착이 시급히 실현되어야 하고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은 자명하다.

3) 오리고기 유통 및 소비

과거 2년간 오리고기 유통가격은 보기 드문 높은 시세가 형성되면서 계열유통업계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반면 최종 유통 업체는 물량부족 높은 구매시세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장기간의 불황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서 생각하면 공정한 결과일 수도 있다. 장기간의 호황은 유통계열 업계 역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소규모 유통업체의 계열유통사업의 진출 증가가 그 것이고 대형 오리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오리고기 소비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반대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생산물량 확대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7월 오리도축장에 대한 HACCP 제도 시행과 내년도 개별포장 의무화는 유통업체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의 준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품질 좋은 오리고기 공급기회를 늘려 오리고기 소비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풀이된다. 도축장을 구비한 유통계열업체를 위시하여 일반 계열유통업체, 소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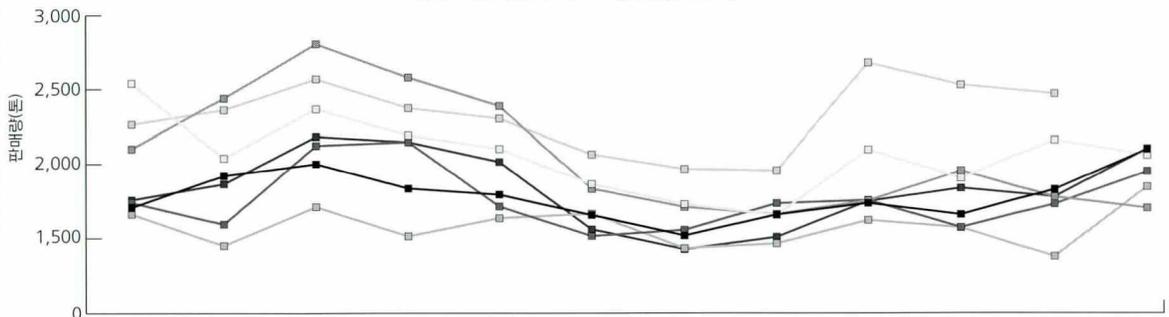
모 유통업체, 나아가 개별사육형태의 유통업체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생산물량을 증가하고 있어 소비량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장기불황 국면을 맞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오리고기 시장이

불황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가격 경쟁 심화에 의해 유통가격은 밝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란사료 판매량에 기초한 생산물 예측〉

일별	신란사료(톤)	사료섭취	중오리(백수)	암컷(중오리)	토종비중	비오리(중오리)	신란율	중란생산비율	부화율	계정생산량(백수)	출하율	육용오리(한양)		
05.1	1,758	230g	2,548	2,038	10%	1,834	70%	38,514	70	21,245		15,277		
2	1,866	230g	2,704	2,163	15%	1,838	70%	38,598	70	26,959		19,120		
3	2,183	225g	3,234	2,587	15%	2,199	80%	52,776	75	28,948		24,263		
4	2,146	220g	3,251	2,601	15%	2,210	85%	53,040	80	42,220		27,211		
5	2,014	220g	3,051	2,441	10%	2,196	85%	52,704	80	42,432		39,687		
6	1,559	210g	2,474	1,979	10%	1,781	70%	37,428	75	39,528		39,886		
7	1,424	210g	2,260	1,808	10%	1,627	70%	30,067	70	26,199		37,156	7갑	
8	1,508	210g	2,393	1,915	10%	1,723	70%	36,183	70	21,046		24,627	34갑	
9	1,750	220g	2,642	2,117	10%	1,905	80%	45,720	70	27,137		19,784	20갑	12 갑
10	1,837	220g	2,792	2,223	10%	2,000	80%	48,000	75	34,290		25,509	29중	3 중
11	1,780	230g	2,581	2,065	10%	1,858	75%	41,812	75	36,000		31,546	24중	3 중
12	2,102	230g	3,046	2,437	10%	2,193	60%	39,476	70	29,268		32,400	2,7중	17중
계	21,927		32,976	26,374		23,364	76%	514,318	73	392,246		336,466		
06.1	2,265	230g	3,284	2,627	10	2,364	65	46,098	60	23,685	80	23,414	19 갑	72 중
2	2,362	230g	3,424	2,739	15	2,328	70	47,691	65	29,963	90	21,317	9 갑	11 중
3	2,568	225g	3,799	3,039	15	2,583	80	62,002	75	41,670	94	28,165	32 중	16 중
4	2,374	220g	3,585	2,868	15	2,437	85	62,143	80	46,519	94	39,587	45 중	45 중
5	2,304	220g	3,491	2,792	10	2,513	85	64,081	80	49,715	94	43,728	19 중	19 중
6	2,064	210g	3,276	2,621	10	2,359	75%	53,074	80	51,265	94	46,732	7중	17중
7	1,965	210g	3,119	2,495	10	2,246	75%	50,528	75	42,459	94	48,189	3 중	30 중
8	1,955	200g	3,258	2,606	10	2,346	70%	42,228	75	37,896	94	39,911	17 갑	62 중
9	2,677	210g	3,400	2,720	10	2,448	70%	51,408	65	32,022	90	34,107	15 갑	72 중
10	2,528	220g	3,830	3,064	10	2,758	80%	66,187	70	35,985	94	30,101	10 갑	20 중
11	2,469	230g	3,580	2,864	10	2,577	75%	57,996	75	49,640	94	33,826	12 중	7 중
12					10					43,497	92	45,669	35 중	41 중
합계	25,531		38,046	30,435	135	26,959		603,436		484,316	92	434,746		129 중
07.1											92	40,017	12 갑	71 중
2														

〈년도별 신란사료 생산량 변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0년	1707	1921	2000	1836	1794	1656	1517	1659	1736	1659	1829	2098
2001년	2539	2039	2368	2191	2101	1865	1728	1656	2096	1905	2159	2058
2002년	2101	2439	2804	2578	2388	1833	1709	1661	1753	1954	1778	1703
2003년	1740	1594	2123	2146	1814	1515	1555	1735	1756	1572	1730	1950
2004년	1662	1450	1711	1513	1635	1665	1431	1464	1622	1571	1377	1847
2005년	1758	1866	2183	2146	2014	1559	1424	1508	1750	1737	1780	2102
2006년	2265	2362	2568	2374	2304	2064	1965	1955	2677	2528	2469	2000